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7) 이젠 가해자가 '진실의 입' 열어야 한다

학살자 지휘구조·가해 정도 분류...40년 발뺌·변명 끊어야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실태조사·법률적 제재 생략
40년 지난 오늘날까지
가해자들 책임 구분도 모호

강제권한 없는 과거사조사위
공수부대원들 면담조사
행위 인정 안해 성과 없이 종료

송선태 진상규명조사 위원장
"진실 말 할 사회 분위기 조성
사병들부터 조사 시작하겠다"

5월은 온갖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싱그러운 달이다. 하지만 광주에게 5월은 아직도 '아픔'이다. 아직 1980년 5월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을 지시하고, 학살을 집행한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발포 명령', '헬기 사격'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선 법적 처벌이 이뤄졌지만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초 발포명령자와 발포명령 지시자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18의 최고책임자인 전두환은 그날의 일을 사죄하기는커녕 호위호식하는 모습으로 광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이소됐지만 알츠하이머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해 11월 골프라운딩에서 본인은 광주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촬영됐고, 이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고급 음식점에서 '삭스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음식점에는 전씨와 그의 부인 이순자씨,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정호승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명이 참석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으며, 축하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즐겼다는 소식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5·18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줬다.

전씨를 비롯한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만들었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혹은 법적 처벌은 받았더라도 사면을 받았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마친 수백명의 계엄군이 도청광장에 모여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에서 4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장으로 넘겨지기 전 505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당시 사망 행불자가 181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2762명, 기타 희생자는 1472명에 이른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학살을 가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 구분도 모호하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5·18이 국가 차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5·18의 가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적 자료조사가 부재했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축적되지도 못한 실정이다.

일부 5월 전문가들은 5·18 가해자들에 대한 폭 넓은 실태 조사나 가해정도에 따른 분류, 법률적 제재 등의 과정이 대부분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살인·고문·사체유기·성폭행 등 3·7·11 공수부대원을 면담조사를 실시 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답변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성과 없이 조사는 종료됐다.

그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관련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고 "오히려 내가(공수부대원) 피해자다"라는 자

세로 일관하는 등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듯 학살 가해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5·18 진상규명 과정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5·18은 과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피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은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공개했다.

보상부터 진행됐고, 국민적 화합이라는 명목아래 책임자들이 사면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한 5월 연구자는 "5·18 가해자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정의도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의 위계, 가해 행위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사회의 주요

부분, 가해행위의 유형, 가해의 방식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와 기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위계구조와 가해행위 유형의 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직업 군인과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학살에 나선 자와 소극적으로 나선 이들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5·18 가해자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체계적인 1차 사료의 확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가해자들은 국가기관이거나 준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았던 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부분 문서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훼손·가공했기에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에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그동안의 구술기록은 물론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나 일기, 일지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가해자들의 증언일 것이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가해자들이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당시 가해자들을 지휘체통의 상층에서부터의 조사가 아닌 밑부분인 사병들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광주정신 새 햇불로 거듭나기를

조영대 신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내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광주시민은 전 국민과 함께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전두환이 저지른 죄악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총소사를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그 재판 담당 장동혁 판사가 역사적

으로 그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판사직을 그만 두으로써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전두환과 연계된 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입후보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재판의 흐름을 되짚어 볼 때 장판사가 피고인 전두환 측의 재판 지연작전에 같이 편승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헬기총소사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 전두환 측의 불합리한 증언 세우기를 받아들이며 1심 결판을 지연시킨 것은 결국 전두환 측에 대한 비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을 핑계 대는 피고 전두환을 광주지법

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허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두환은 최근에도 골프나들이와 호화오찬을 하는 등, 건강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 이 입증됐음에도 장 전 판사는 검찰의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에 대한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정히 재판을 진행"했다지만 수구 기득권당 한국당에 깊이 연루된 정치판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어느 인터뷰에서 "판사는 천직"이라 했는데, '천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행태를 통해 판사를 '하늘이 내려준 신성한 직책'이 아니라 '천한 직책'이라고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정치가 뭐가 그리 좋아서 그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신성한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

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관련 막대한 자료와 증언이 쌓여있는데, 세 번째로 부임할 판사가 이를 검토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판사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안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18 40주기를 앞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만 차고 있을 일이 아니라 5·18 재단과 변호인단과 심기일전하여 새 담당 판사를 중심으로 올바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5·18 40주년은 짧게는 5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으로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5·18



의 희생과 광주 민주정신, 대통령정신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민주화와 정의, 평화통일을 향한 밑거름과 햇불로서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할 것입니다.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기억하고 교육시켜갈 기념비가 될 사업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벤치마킹 해 도청에서 출발하여 망월동에 이르는, 광주 5·18의 주검들을 리어카에 실어 날랐던 길을 '망월동 가는 길'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조성되면 국내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길이길이 순례를 하면서 광주의 진상을 새로이 알게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외국인들도 민주성지인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순례를 하는 국제적인 순례코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